

#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루계 제2762호]

주체 112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음력 6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영웅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한 전승축전

- 열병광장에서 빛나던 《승리》상을 보며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들은 끝났지만 그것이 준 충격과 감동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고있다.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이번 열병식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승리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모은것은 미제에게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안기고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영웅성,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상징하는 《승리》상이었다.

이 《승리》상이 빛을 뿌리는 속에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앞으로 공화국의 승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레일이 도도히 굽어쳐 흘러갔다.

《승리》상은 단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당한 전승의 위훈으로만 빛나는것이 아니었다.

3년간의 가렬치열한 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제에게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안긴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전후 70년간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온 미국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이 땅에 위대한 승리와 기적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온것은 얼마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것인가.

70년전 전승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에서 인민군인들이 보총과 기관단총을 들고 승리의 열병식을 행한다면 오늘에 와서는 절대적 힘, 초강력을 과시하며 열병식광장을 지나갔다.

하기에 열병식을 본 경축대표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은 저마다



다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정말 힘이 난다. 최강의 군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을 누구도 다칠수 없게 되었다.》, 《강대한 국가의 공민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속에 차넘친다.》, 《이 위대한 조국을 빛내기 위해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겠다.》... 언데와 세기를 이어 빛나는

조신의 승리, 그것은 다름 아닌 절세위인들께서 공화국인민에게 안겨주시는 것이다.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높이 모시어 백수십차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었던 미국을 거꾸러뜨리고 전승의 축포를 쏘을

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은 령도와 인구, 경제력, 군사장비 등 모든 면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너무도 대비가 되지 않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미제는 공화국을 단시일내에 병탄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고 모든 인적, 물적수단을 다 동원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가 있어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될수 있었다. 조신의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대

를 이어 빛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종말》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사면팔방으로 달려들던 준엄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최악의 시련을 격파하며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으로 공화국을 행성의 중심에 우뚝 올려세워주시었다. 오늘 공화국은 회세의 천출명장,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정의와 평화의 보루, 초대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공화국인민 누구나 심장으로 깊이 체득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준비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공화국의 국방력을 누구도 넘보거나 견줄수 없는 최강의것으로 강화하시었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서 단호하고도 선제적인 실천행동으로 미제에게 편속합대를 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명한 전략과 비범한 령군술에 의하여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한 것으로 더욱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하기에 전승 7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 또 웨친 것이다.

열병광장주석단에 서서 최정예부대,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사열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내고 이 행성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실 강철의 의지가 력력히 빛나고있다.

《승리》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영광찬 승리의 력사가 앞으로 700년, 7 000년으로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라는것을 선언하고있다.

정령 《승리》상은 영원히 승리를 펼칠 공화국의 상징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백광철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7월 26일 도교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희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7월 27일 중국 길림성문경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원협회, 재중조선인내선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구협회, 룡양지구협회, 룡양시지구협회, 동시지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교자 황백가가족, 길림지

#### 총련중앙강연회 진행

장, 총련중앙 국장들과 일군들이 강연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화편집물 《승리의 대를 이어-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를 감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었

####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보고회가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비전일군들,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원협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내선협회 회원들, 룡양지구협회 산하 지부장들, 심양시지구 공민들, 중국 조선족기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설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강령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애국적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해 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총련 오사카부본부, 효고현본부와 지부, 분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에서도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자강강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떨쳐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좌담회와 동포예술인들의 공연, 연회가 있었다.

한편 7월 26일 총련 합회회의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열리는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묵단지구협회, 중앙지구협회 상해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가 있었다.

#### 국제고통련 토론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성미술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7.27은 조선인민이 세계체제를 꿈꾸던 미제를 타승하고 항복서를 받아낸 날이라고 하면서 이력사적승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천재적인 전략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었으며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덤벼들수 없게 된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영웅적조선인민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룡양고통련과 동포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본시기자

### 전승 70돐 경축 대공연

#### 평양시민들의 절찬속에 련일 진행

위대한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예인 전승절을 청사에 특기할 대축전, 전인민적인 명절로 성대히 기념한 가슴뿌듯한 자부가 온 나라에 넘치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이 수도 평양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이 시작되자 전승의 그날에 불꽃되었던 환희와 격정이런듯 무대배경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글발 《위대한 연대에 경의를 드린다》가 정중히 모셔지고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승리의 찬가 《우리의 7.27》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출연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억만공파도 바꿀수 없는 위대한 승리전통,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과 필승의 기상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였다.

세계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시어 시대와 력사, 조국과 인류애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승리만을 떨치는 영웅조선, 영웅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송고한 경의가 녀성중창과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에서 세차게 분출되었다. 전화의 나날 가렬한 격전장마다에서 침략자들에게 준엄한 철수를 내린 화신용사들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이 맥박치는 전사가요들이 련이어 무대에 올랐다. 전승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무대화면에 모셔지고 우렁우렁 하신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회세의 천출명장에 대한 다

아울러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승리만을 떨치는 영웅조선, 영웅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송고한 경의가 녀성중창과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에서 세차게 분출되었다.

전화의 나날 가렬한 격전장마다에서 침략자들에게 준엄한 철수를 내린 화신용사들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이 맥박치는 전사가요들이 련이어 무대에 올랐다. 전승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무대화면에 모셔지고 우렁우렁 하신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회세의 천출명장에 대한 다

함없는 경모심으로 뜨겁게 설레이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미증유의 전승을 안아오고 피로써 지켜낸 국호와 국가의 권위와 힘을 누리에 떨치는 선열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혼성중창과 합창 《근위부대 자랑가》, 녀성독창과 합창 《나의 한생》, 무용과 교예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를 비롯한 종목들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출연자들은 반제주의의 한 전호에서 맺어지고 공동의 위업실현에서 공고화된 조중, 조로인민의 친선단결과 전투적우의는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중국과 로씨야노래편곡들에 담았다. 존엄은 오로지 강자의것, 평화도 오로지 강자의것인 오늘에 세계에서 대를 이어가는 백성은 더욱 값지고 위대한것임을 격조높이 토로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을 영원한 전승국, 불패의 최강국으로 세기우에 떠올릴 집인민적사상강국을 세차게 분출시킨 설화시 《승리는 대를 이어》는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7.27의 기적이 새겨주는 진리를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인민의 역사의 순간과 의지를 노래한 대공연은 시민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시기자

